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뉴저지 새언약교회(담임 김종국 목사)는 24일 주일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설교 후, 목장별 찬양과 간증이 이어졌다.

새언약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 찬양과 감사 넘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뉴저지 새언약교회(담임 김종국 목사)는 24일 주일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오후 12시45분부터 시작한 예배는 김종국 목사가 인도했다. 영어 설교는 안벤자민 전도사가 맡았다.

안벤자민 전도사는 시편 107편 8-9절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본문으로 '감사의 능력(The Power of Thanks)'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안 전도사는 "저는 예전의 추수감사주일은 두 가지 면에서 감

사를 드렸다. 뭔가를 이루게 하신 것, 즉 성공에 대하여 감사하게 했었고, 어느 날 보다도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기에 감사했었다. 감사의 포커스가 나에게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크게 감사할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다.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 좋은 가족, 좋은 교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란다"는 요지의 설교를 했다.

설교 후, 목장별 찬양과 간증이 이어졌다. 일부 신자들은 "체대로 연습을 하지 못했기에, 서툴 수밖에 없는 찬양이었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고 말했다. 예배와 삶, 성경 공부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신자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와 감사가 넘쳤다.

△새언약교회 주소: 641 Church St., Oradell, NJ 07649

△문의: 201-694-2855.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